

sipri

MO
MO
PEACEMOJO

SIPRI YEARBOOK 2024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는 분쟁, 무장,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는 비정부 민간 연구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와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심 있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24년 SIPRI 연감은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무기 생산, 핵전력, 무력 분쟁 및 다자간 평화 작전과 같은 분야의 원본 데이터와 군비 통제, 평화 및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부문의 최신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24년 SIPRI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요약, 제공한다.

목차

1. 도입: 2023년 국제 안정과 인간 안보	1
1부. 무력 분쟁 및 분쟁관리, 2023	
2. 무력 충돌 추이	2
3. 다자간 평화활동	4
4. 무력 분쟁의 사안별 문제	6
2부. 군사비 지출 및 군비, 2023	
5.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동향	8
6. 국제 무기 이전	10
7. 세계 핵전력	12
3부. 비확산, 군비통제, 군축, 2023	
8.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방지	14
9. 생화학적 및 보건상의 안보 위협	16
10. 재래식 군비통제 및 비인도적 무기의 규제	17
11. 인공지능,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의 국제 거버넌스	18
12.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
부록	22

* 이 번역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공식 버전인 영문 요약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

: 2023년 국제 안정과 인간 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지난 10년 동안이 그랬듯이, 2023년에도 세계 안보는 계속 악화되었다. 가자, 미얀마, 수단, 우크라이나에서 주요한 무력 충돌이 있었고, 군비 지출은 9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태적 파괴 또한 계속되었고, 2023년은 최소 174년만에 가장 더운 해이기도 했다. 국가간 안정은 강대국 간의 대립 심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그 결과, 60년간 지속된 핵 군비 통제 레짐이 끝날 위협에 처해 있다.

세계 질서와 무질서

현재의 국제 질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0년대 후반에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유엔 회원국들중 다수가 유럽의 쇠퇴하던 몇몇 열강의 식민지였던 시기였다. 세계는 변화했고, 그 사이 국제 질서는 진화했지만 상당한 연속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 질서의 형태에 대한 논쟁은 규칙과 규범의 정당성과 권력의 분배 및 행사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

국제 질서는 무력 충돌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강대국들 간의 분열과 경쟁,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분쟁의 구조와 깊은 뿌리, 주요 정부와 지도자들의 행동에 의해 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유엔 시스템은 국제 질서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규범 기반의 조직이다. 이는 가자(Gaza)에서의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서방의 반응

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명확한 비판에서의 불일치가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국제 기관과 국제 인도법의 효과는 규범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합의에 의존하며, 그 합의가 줄어들면 기관의 효과도 감소하게 된다.

협력하는 습관의 발전

국제 질서 위기의 여파는 쉽게 또는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기후 위기는 협력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식되는 영역이지만, 전력은 혼재되어 있다. 폭 넓은 생태 위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의 전면에 대한 경고와 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새로운 팬데믹의 위험은 주요 행위자들을 분열시키는 다른 이슈와는 상관없이 긴급히 협력이 필요한 또 다른 문제이다. 무역과 항해의 자유는 공동의 이익이 깊게 뿌리내린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 협력하는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협력이 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함으로써, 오늘날의 도전에 맞춰 국제 질서가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무력 분쟁 추이

비록 무력 충돌을 겪은 국가 수는 2022년의 55개국에서 2023년에는 52개국으로 감소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 사망자 수는 2022년의 153,100명에서 2023년의 170,700명으로 증가하여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에는 주요 무력 분쟁(즉, 연간 10,000명 이상의 무력 충돌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분쟁)이 네 건 있었으며, 이는 2022년보다 한 건 더 많은 수이다: 미얀마와 수단 내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강도 무력 분쟁(즉, 연간 1,000~9,999명의 무력 충돌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분쟁)의 수 또한 2022년의 17건에서 2023년의 20건으로 증가했다.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3년 내내 양측에 큰 희생을 초래했지만, 동부와 남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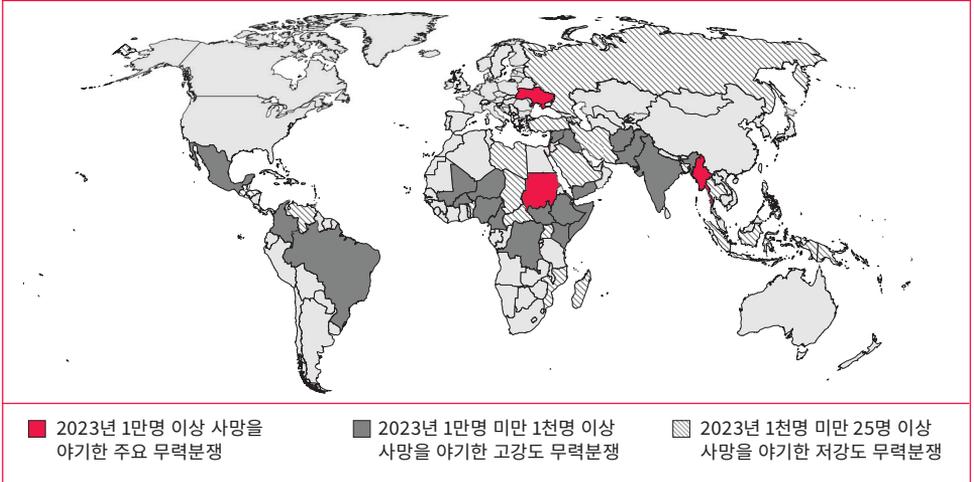
크라이나의 전선은 연말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공습은 계속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동일한 규모는 아니지만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양측은 동맹국들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았다. 연중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공식 평화 회담은 없었고, 2022년 흑해 곡물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이라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도 2023년에 무너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3월에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주에 대한 책임으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또 다른 러시아 공무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교착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9월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전에도

2023년 무력분쟁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보증 또는 승인과 무관함.



상당한 불안정을 겪고 있었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고강도 무력 분쟁이 계속되었다. 2023년 MENA 지역의 추정 무력 분쟁 관련 사망자는 35,900명으로, 2022년의 16,90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8년의 75,400명보다는 여전히 절반 이하이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전쟁 상태를 선포했다. 연말까지 이스라엘의 공습 및 지상 작전으로 22,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국제 전문가들은 기근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쟁은 이미 높았던 MENA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예를 들어, 예멘의 후티군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서방 강대국들이 해당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게 만들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많은 분쟁은 연간 1,00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저강도 분쟁이었다. 민주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 고강도 무력 충돌 국가들에서는 분쟁 관련 사망자가 감소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충돌 관련 사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수단은 2022년과 비교해 537% 증가했고, 부르키나파소는 100% 증가했으며, 소말리아는 28% 증가했다. 2023년 4월 15일 수단에서 경쟁관계인 군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한 전투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하고 전면적인 내전으로 이어

졌다. 사헬 지역에서는 니제르의 쿠데타와 말리의 유엔 평화유지군 추방 결정이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미주 및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미주는 2018-23년 기간 동안 주요 무력 분쟁이 없었던 유일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두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정치적 폭력이 아닌 주로 범죄를 직면했다. 범죄 갱단 관련 폭력은 2023년에 아이티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미얀마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전체 분쟁 관련 사망률은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 관련 사망자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평화 프로세스

2023년에는 평화 구축을 위한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예멘에서는 유엔이 후티군과 예멘 정부 간의 휴전 재개를 시도하며 한 해를 시작했으며, 2023년 말까지 양측은 새로운 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아프리카 연합 소규모 감시 임무의 지원을 받아 2022년 11월 휴전을 이행하는 데 협력했다.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정부가 여러 무장 단체와의 평화 이니셔티브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



3. 다자간 평화활동

2023년에는 63개의 활발한 평화 활동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한 건 적은 수이다. 2023년에 새로 시작된 세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유럽 연합(EU) 아르메니아 민간 참관 임무 (EUMA), EU 몰도바 파트너십 임무 (EUPM Moldova),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의 콩고 민주 공화국 임무 (SAMIDRC). 반면, 2023년에 종료된 네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유엔 말리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단 (MINUSMA), 유엔 수단 과도통합지원임무단 (UNITAMS), 콩고 민주 공화국 동아프리카 공동체 지역군 (EACRF-DRC),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연합 군사감시단 (MOUA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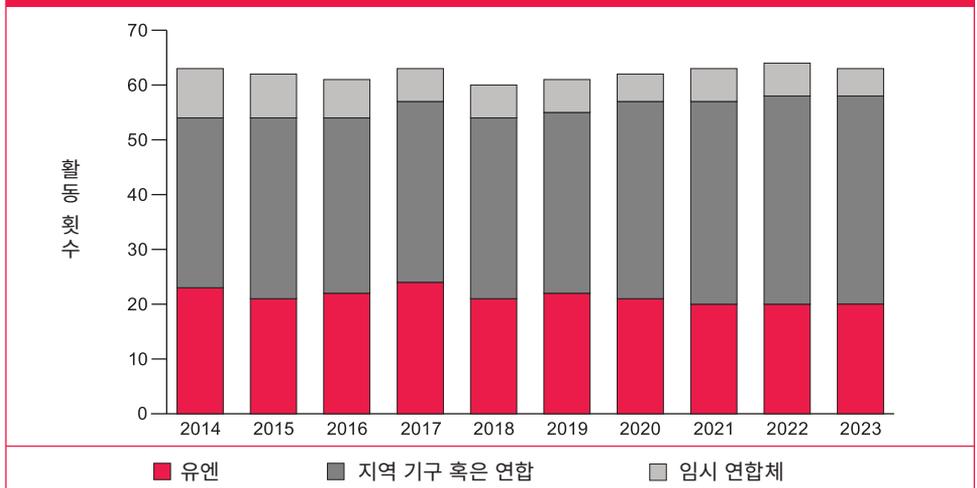
2023년 동안 전 세계 다자간 평화 활동에 배치된 인력 수는 13% 감소하여, 2022년 12월의 114,984명에서 2023년 12월의 100,568명으로 줄었다. 이는 2014-23년 10

년 기간 동안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자 최저 배치 인원 수이다. 2023년의 감소는 주로 대부분의 평화 활동 인력이 배치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다.

유엔은 여전히 다자간 평화 활동을 관할하는 주요 조직으로 남아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활동의 약 3분의 1과 모든 배치 인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화 활동은 지역 기구 및 동맹에 의해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2023년에 38개의 다자 평화 활동을 주도했는데, 이는 2022년과 동일한 수치이다. 국가들의 임시 연합은 2023년에 다섯 개의 다자 평화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한 건 적은 수이다. 또한 2023년에는 안전과 안정에 기여하려는 여러 다른 다자간 활동이 있었으나, SIPRI에서 다자간 평화 활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2023년 동안 유엔 다자간 평화 활동에서 근무하던 국제 인력 45명과 현지 직원 15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41명 적은

다자간 평화활동 횟수 (수행기관 종류별, 2014년-2023년)



다자간 평화활동 실행 횟수 및 파견 인력 수(지역 및 기관 별, 2023년)

수행 기관	미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세계
실행 횟수	3	3	19	14	24	63
유엔	2	2	2	7	7	20
지역 기구 혹은 연합	1	0	14	6	17	38
임시 연합체	0	1	3	1	0	5
파견 인력	377	321	9 215	14 283	76 372	100 568
유엔	357	311	1 016	12 433	53 526	67 643
지역 기구 혹은 연합	20	..	7 059	684	22 846	30 609
임시 연합체	..	10	1 140	1 166	..	2 316

.. = 해당사항 없음.

참고: 2023년 실행된 다자간 평화활동의 수는 해당년도에 실행이 종료된 활동들을 포함함. 파견 인원 숫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수치로, 2014-23년 10년 기간 동안 유엔 평화유지군 사망자 수 중 가장 적은 수치이다.

변화하는 평화 활동 환경

2023년에는 다자간 평화 활동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경향이 지속되었다. 첫째, 확대된 지정학적 긴장이 무력 분쟁 관리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나 아프리카 연합 평화안전이사회에서 새로운 활동에 대한 합의 도출이나 기존 활동의 임무 조정이 어렵게 되었다. 둘째, 기존 평화 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불만이 증가하여 주최국에서 그 효과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셋째,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주도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기구 주도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네 가지 예상되는 미래 발전을 시사한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지역 협의체에서의 양극화와 합의 부족은 국제 사회의 분쟁 관리에 대한 무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다자적 평화 활동에 대한 대

안으로서 민간군사보안기업과 임시 또는 양자 활동의 증가는 분쟁 관리의 분열을 시사한다. 셋째, 분쟁 관리 의사 결정 및 실행이 점점 더 제도적 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탈제도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군사화되고 안보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다자적 평화 활동의 환경을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



4. 무력 분쟁의 사안별 문제

무력 분쟁은 종종 다수의 무장 단체와 주요 강대국 및 지역 행위자의 대리군 사용을 포함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2023년의 복잡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드러났다: 무력 분쟁에서 바그너 그룹 및 기타 러시아 민간군사보안기업(PMSC)의 역할, 무력 분쟁의 결과이자 유발 요인으로서의 식량 불안정, 예멘에서의 기후 변화, 분쟁 및 불안정 간의 연계성.

바그너 그룹

최근 몇 년 동안 무력 분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민간군사보안기업(PMSC)의 빠른 성장이다. 러시아 정부와 명확한 연결고리를 가진 러시아의 유명 민간군사보안기업인 바그너 그룹은 2023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2023년 첫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바그너 그룹의 성공은 주로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에 수많은 범죄자들을 모집하여 높은 인명 피해를 감수한 결과였다. 2023년 6월 러시아 정부는 국방부 산하로 바그너 그룹을 포함한 비정규 및 소위 자발적 부대들의 통합을 명령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공식화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6월 말 단기 무장 반란을 선동했는데, 이는 30년 만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첫 무장 반란이었다.

6월 24일, 바그너 그룹의 부대와 탱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로 진격하여 한 부대는 로스토프나도누(Rostov-on-Don)으로, 다른 부대는 모스크바로 향했다. 반란은 프리고진과 그의 병력이 인접한 벨라루스로 이동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빠르게 중단되

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프리고진은 개인 제트기 폭발로 사망했다. 그 후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준군사 활동을 더 확실히 통제하기 위해 움직였다.

2023년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은 바그너 그룹의 주요 인사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룹의 국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했다.

식량 불안정

식량 시스템, 폭력 분쟁 및 평화 간의 연계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단의 내전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 가지 분쟁이 전 세계 식량 안보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농업 생산을 파괴하고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23년 7월 러시아가 2022년 흑해곡물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물류 네트워크 및 해상 회랑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2023년 말에는 침공 전 수준에 근접했다. 수단은 2023년 무력 분쟁, 경제 침체 및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량 불안정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동시에 원조는 크게 감소했다. 또한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은 남수단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식량 시스템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고, 기근은 가자지구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다.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정이 증가한 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량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했다. 이는 아이티와



바그너 그룹

2023년 초에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그너 그룹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말리에서 반군과 반란군을 상대하는 정권들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수단에서 내전에 연루된 군벌 또는 민병대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나라들의 고가의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연말이 되자, 러시아의 아프리카 개입 수단으로 새로운 '아프리카 군단(Africa Corps)'이 창설되고, 바그너의 아프리카 내 작전을 흡수하고 이어나갈 다른 민간 군사 기업이 등장하면서 아프리카에서의 바그너의 입지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같은 일부 국가에서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전반적인 식량 안보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러한 전반적인 식량 안보 개선은 긍정적인 노동 시장 발전과 효과적인 사회 보호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증가하는 폭력 수준은 이러한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식량 불안정과 분쟁 간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필수적이다.

예멘의 기후 및 안보

계속되는 기후 위기는 특히 예멘과 같은 분쟁 영향 및 취약 국가에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멘의 내전은 국가 인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높였으며, 기후 변화는 가뭄 및 홍수의 위험을 악화시켜 중요한 농업 생산을 방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약 1,700만 명, 즉 인구의 53%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

안정을 겪었다. 기후 변화와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도전은 식량 및 생계 안보를 악화시켰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인 무력 분쟁은 2023년에도 예멘에서 주요한 인구 이동 원인이 되었으며, 극심한 기상 현상은 이재민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기후 변화는 주요한 토지 및 수 자원에 대한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2023년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물 인프라를 공격하고 농지, 어업 및 목초지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부족 민병대가 관련된 현재 많은 공동체 간 분쟁은 지하수 관개 프로젝트와 같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원에 관한 것이었다.

인도주의 및 평화 구축 노력은 기후 회복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 기후 영향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구의 취약성을 고려한 해결책을 신중하게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예멘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휴전 및 정치적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5.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2023년 전 세계 추정 군사비 지출은 9년 연속 증가하여 2023년에 2.4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무기 수요의 증가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기회사들은 생산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총 군사 지출의 6.8% 증가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SIPRI가 세계 군사비 지출을 기록해 온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 결과 세계 군사비 부담률, 즉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3%로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평균적으로 예산의 6.9%를 군사비에 할당했으며, 이는 1인당 306달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개 지역 모두에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23년 22%),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미주 지역(2.2%)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이다. 미국이 지출한 9,160억 달러는 상위 10개국 중 다른 9개국의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았으며, 두 번째로 큰 지출국인 중국의 3.1배에 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격화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증가 추세는 2023년에 더욱 두드러져 유럽 43개국 중 39개국이 군사비 지출을 늘렸다. 유럽의 총 지출이 16% 급증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출이 51%, 러시아의 지출이 24% 증가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8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2023년 GDP 지출 목표치인 2%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여 2014년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

지역	지출 (US 미화, 단위: 10억)	증감율 (%) 2022-23
아프리카	51.6	22
북아프리카	28.5	3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1	8.9
아메리카	1 009	2.2
중앙아메리카	14.7	-0.4
그리고 카리브해		
북아메리카	943	2.4
남아메리카	50.7	-0.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95	4.4
중앙아시아	1.8	-5.3
동아시아	411	6.2
오세아니아	35.5	-0.9
남아시아	98.2	2.2
동남아시아	47.8	-1.6
유럽	588	16
중부 및 서부유럽	407	10
동유럽	181	31
중동	(200)	9.0
세계 총계	2 443	6.8

()=불확실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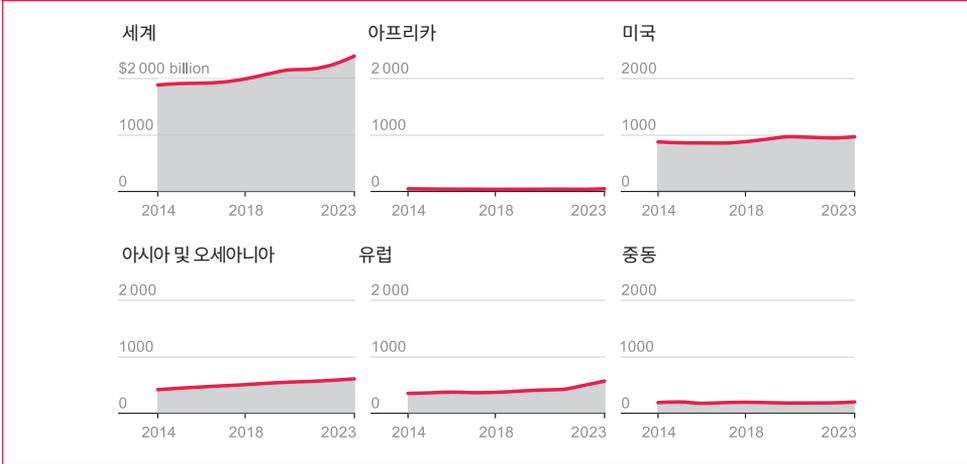
참고: 현 지출 수치 현재 가격 및 환율로 미화 달러로 표시. 변경 사항은 상수 (2022년), 미국 달러 기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추정 군사비 지출은 34년 연속 증가했다. 이 지역 총 지출액의 절반은 중국의 지출로, 2023년 6.0% 증가하여 2960억 달러에 도달했다. 중국의 지출은 이웃 국가들과 지역 전체적인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출은 11% 증가했으며, 이는 1972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폭이다.

추정된 중동의 군사비 지출은 2023년에 9.0% 증가했으며, 이 지역의 가장 큰 지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및 터키의 지출이 모두 증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 지출을 24%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2014년-2023년 지역별 군사비 지출



참고: 2022년 상수 기준, 미화, 단위: 10억 달러

SIPRI 상위 100대 군수 기업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수 서비스 기업(SIPRI 상위 100대 기업)의 무기 매출은 2022년(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해) 3.5% 감소한 5970억 달러에 그쳤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미국과 러시아 기업의 무기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이지만, 미국은 42개 기업의 무기 매출을 합쳐 3,020억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가용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2022년 상위 100대 기업에는 러시아 기업 2개사만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총 무기 매출은 208억 달러로 2021년보다 12%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무기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기업들이 신규 생산 대신 개보수에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수 생산에 미친 영향

서방의 제재와 무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무기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품(예: 마이크로칩)을 수입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부품은 중국산 대체품에 의존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럽 및 미국 기업들과 국제 협력을 맺었다.

무기 수요 증가와 상위 100대 군수 기업의 매출 감소 간의 전반적인 불균형은 무기에 대한 초기 수요와 군수 기업들이 생산 및 납품을 확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지연을 강조한다.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이 높은 수요를 매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과 터키와 같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



6. 국제무기 이전

2019-2023년 동안 주요 무기의 국제 이전 규모는 2014-2018년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2009-2013년 기간에 비해서는 3.2%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의 무기 이전 규모는 냉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지만, 냉전 기간의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35%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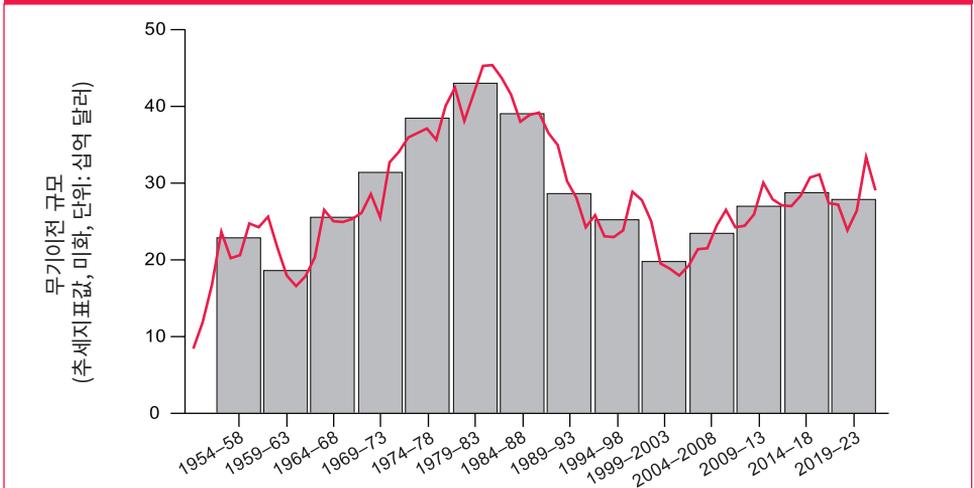
각국의 무기 획득은 주로 해외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무력 분쟁과 정치적 긴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주요 무기에 대한 수요는 주로 국제 이전을 통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지상 공격 무기와 훨씬 더 간단하고 저렴한 무장 무인 항공기 및 미사일은 계속해서 전체 주요 무기 이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무기 공급국

SIPRI는 2019-2023년에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66개 국가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수출국이다. 상위 25개국이 전체 수출량의 98%를 차지했으며,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상위 5개국이 75%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러시아의 점유율은 감소했다. 2019-2023년 동안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14-2018년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세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서 42%로 증가했다. 반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53% 감소했고, 세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11%로 떨어졌다. 프랑스의 수출은 2014~18년과 2019~23년 사이에 47% 증가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2019~23년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향후 알려진 주요 무기 인도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앞으로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주요 무기 이전 추세, 1954-2023



참고: 막대 그래프는 5년 기간 동안 무기이전의 평균 총량을 표시하고 라인 그래프는 연간 합계를 나타냄.



주요 무기 수출입국 (2019-23)

수출국	세계 점유율(%)	수입국	세계 점유율(%)
1 미국	42	1 인도	9.8
2 러시아	11	2 사우디아라비아	8.4
3 프랑스	11	3 카타르	7.6
4 중국	5.8	4 우크라이나	4.9
5 독일	5.6	5 파키스탄	4.3
6 이탈리아	4.3	6 일본	4.1
7 영국	3.7	7 이집트	4.0
8 스페인	2.7	8 호주	3.7
9 이스라엘	2.4	9 대한민국	3.1
10 대한민국	2.0	10 중국	2.9

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프랑스는 2위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재 상위 10대 수출국 중 일부 국가의 무기 수출은 안정적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무기 수입국

SIPRI는 2019-2023년에 170개 국가를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파악했다. 상위 5개 무기 수입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우크라이나 및 파키스탄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무기 수입의 35%를 차지했다. 2019-2023년 동안 가장 많은 주요 무기를 수입한 지역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동(30%), 유럽(21%), 아메리카(5.7%), 아프리카(4.3%) 순이었다. 2014-2018년과 2019-2023년 사이에 유럽으로의 무기 흐름은 94% 증가한 반면, 다른 모든 지역으로의 흐름은 감소했다: 아프리카(-5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12%), 중동(-12%), 아메리카(-7.2%).

170개의 수입국 중 다수가 직접적인 무력 분쟁에 관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 상

지역별 주요 무기 수입 점유율

수입국 지역	세계 점유율 (%) 2019-23	수입량 증감율 (%) 2014-18~2019-23
아프리카	4.3	-52
아메리카	5.7	-7.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7	-12
유럽	21	94
중동	30	-12

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된 주요 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출국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분쟁과 긴장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일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공급이 자국의 무기 수출 정책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무기를 공급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또한 대부분의 공급국에게 무기 수출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들의 무기 수출의 금전적 가치

SIPRI의 무기 이전 데이터는 금전적 가치를 표기하지는 않지만, 많은 무기 수출국들이 무기 수출의 금전적 가치를 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SIPRI는 2022년 전 세계 무기 거래의 총 가치를 최소 1,38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최근 가용 데이터 확보 연도 기준). 이는 2022년 전 세계 국제 무역 총 가치의 0.5% 미만이다. ●



7. 세계 핵전력

2024년 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스라엘 등 9개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약 12,121개로 추산된다. 이 중 9,585개는 잠재적으로 작전 가능한 상태로 간주된다. 이 중 약 3,904개의 핵탄두가 작전 부대에 배치되었으며, 그중 약 2,100개는 고도의 작전 경계 상태에 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00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핵무기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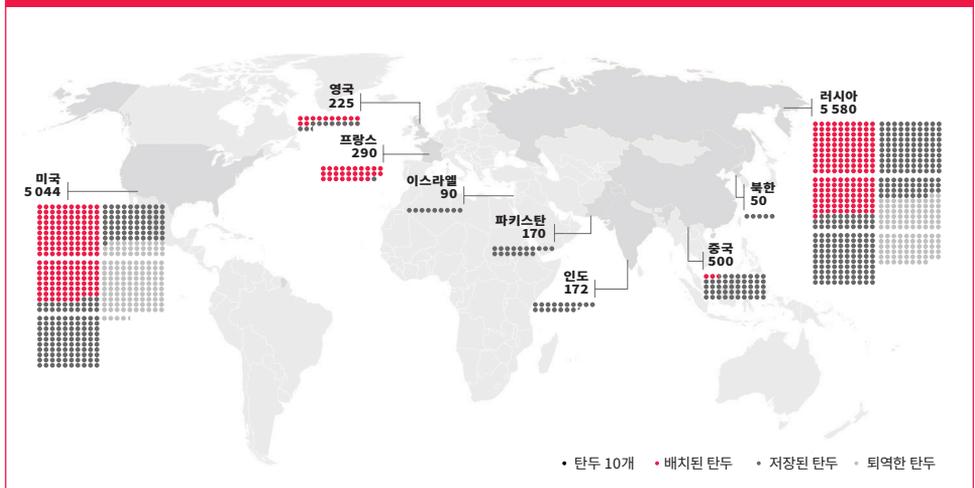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핵탄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한 탄두를 해체한 결과이다. 작전 탄두의 전 세계적 감소는 멈춘 상태이며, 그 수는 다시 증가세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거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핵탄두, 미사일, 항공기 및 잠수함 운반 시스템, 그리고 핵무기 생산 시설을 대체하고 현

대화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핵무기 현대화와 규모 확장을 진행 중이며, 2023년에는 소량의 핵탄두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은 향후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러시아나 미국만큼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탄두 비축량은 여전히 러시아나 미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도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치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비축량을 늘릴 계획이다.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북한은 최대 50개의 핵무기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그들

전 세계 핵무기 재고, 2024년 1월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SIPRI.



2023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현황

핵무기의 원료는 핵분열성 물질로서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파키스탄, 영국, 그리고 미국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핵분열성물질전문가패널 (IPEM)은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3년 보유현황 (톤)

고농축 우라늄	1 245
무기탑재 불/가능	1 100
직접 사용 불가	
안전조치미비	135
안전조치/ 감시조치	10
추출 플루토늄	
무기탑재 불/가능	555
직접 사용 불가	140
안전조치미비	260
안전조치/ 감시조치	155

참고: 수치는 반올림되어 합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의 핵무기 수와 특성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낮은 수준의 투명성

핵무장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현황과 그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용성은 상당히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한 국가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분열성 물질의 양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관측에 근거해 추정할 수 있다. •

세계 핵전력, 2024년 1월 탄두 비축량

국가	탄두 비축량 ^a		총 비축량 ^c
	배치된 탄두 ^b	합계	
미국	1 770	3 708	5 044
러시아	1 710	4 380	5 580
영국	120	225	225
프랑스	280	290	290
중국	24	500	500
인도	-	172	172
파키스탄	-	170	170
북한	-	50	50
이스라엘	-	90	90
합계	3 904	9 585	12 121

=0 또는 무시할 수 있는 값.

참고: 모든 추정치는 근사치이다. SIPRI는 새로운 정보와 이전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세계 핵전력 데이터를 수정한다.

^a ‘탄두 비축량’은 배치된 모든 탄두와 일정 준비 과정 후에 배치될 수 있는 중앙 저장소에 있는 잠재적인 탄두를 의미함.

^b ‘배치된 탄두’는 미사일에 배치되거나 작전 부대가 있는 기지에 배치된 탄두이임.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의 집계 규칙으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c ‘총 비축량’에는 비축된 탄두와 해체를 기다리는 퇴역 탄두가 포함됨.



8.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 방지

핵 군축, 군비 통제, 비확산을 둘러싼 역학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핵 문제를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분리하고, 증가하는 핵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합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표는 거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3년에도 핵무기 통제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연중 군비 통제 협정과 약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만, 특히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이유로 기존 협정에서 일보후퇴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논의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는 소폭의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핵무기 통제의 오랜 교착 상태를 깨고 핵무장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 및 배치하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다.

우크라이나 핵 시설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2023년에는 원자력 안전, 보안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도전 과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잦은 교란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부담을 주었고, 6월에는 카호브카 댐이 파괴되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ZNPP)에 냉각수 공급이 위협받아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상주할 예정이다. ‘원자력 안전과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7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IAEA는 ZNPP를 보호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악화되는 러시아-미국 전략 관계

2023년 2월, 러시아가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서 탈퇴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양자 군비 통제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는 주로 러시아가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검사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1월에 미국이 조약의 특정 조건에 대한 러시아의 준수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였다. 러시아가 핵 문제를 다른 문제와 ‘분리’하는 것을 꺼리면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이후 군비 통제 체제를 포함한 외교 재개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11월 러시아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면서 1996년 조약 서명 개시 이후 비준에 실패한 미국과의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명국으로 남을 것이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JCPOA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되살리려는 오랜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란의 무인항공기(UAV) 러시아 이전은 서방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프랑스, 독일, 영국은 2023년 10월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가 만료된 후에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6월 이란과 미국 간의 비공식 양자 합의는 처음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미중간 전략적 관여

러시아와 미국 간의 군비 통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핵무기 비축량을 보유한 국가들), 중국은 양자 또는 삼자 군비 통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6월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의 베이징 방문은 여러 사안에 대한 대화의 여지를 열어주었고, 미국 측에서는 이 대화가 이후 군비 통제를 포함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해 말 두 국가는 군사 간 소통을 재개하고, 군비 통제 및 비확산을 포함한 여러 주요 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 위협을 줄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 합의는 이란이 IAEA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이란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대리 공격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쟁은 중동 비핵 및 비대량살상무기금지대 설립을 위한 지역 회의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무산시켰으며,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핵 모호성 정책은 이런 상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NPT 검토 주기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단축된 검토 주기는 2023년 7월 검토 절차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와 8월 2026년 검토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로 시작되었다. 실무그룹에서는 핵군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두고 비핵무기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5개 NPT 핵무기국 간 의견이 갈려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한편,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핵 군축에 대한 진전 부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전 검토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논의에서 발생한 몇몇 국가의 회의 진행 방해등은 이미 긴장이 고조된 검토 주기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했다.

핵무기 금지 조약

2017년 제2차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회의는 핵 위협의 증가를 강조하고 핵 공유 협정을 규탄하는 두 가지 결과 문서, 즉 실무적 결정 패키지와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또한 ‘핵 역지력에 기반한 안보 패러다임에 도전’하기 위해 TPNW 산하 국가들의 안보 우려에 대한 새로운 회기 간 협의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국가 중 아직 TPNW 프로세스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없다. •



9. 생화학적 및 보건상의 안보 위협

2023년, 생화학 전쟁 방지를 위한 주요 국제 포럼은 소수 국가들의 방해와 허위 정보로 특징지어졌다. 이는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몇 가지 긍정적인 성과와 대조를 이루었다.

화학 무기 통제

화학무기 통제와 관련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조사는 조사단의 권위와 활동을 방해하고 이의를 제기하려는 소수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2023년에도 계속되었다. 2022년 말에 해결되지 않은 시리아의 OPCW 신고와 관련된 20개의 미해결 문제는 2023년에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 수단으로 폭동 진압 약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화학 활동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조사를 둘러싼 분열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업무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1993년 화학 무기 금지 조약(CWC) 제5차 검토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산업 검증, 지리적 대표성, 화학 테러 예방 및 대응 노력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진전으로, 아직 폐기해야 할 화학무기가 남아 있는 유일한 보유 선언 당사국인 미국은 2023년 7월 남은 폐기 활동을 완료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2023년 5월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새로운 화학 및 기술 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소한 것이다. 만연한 정치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OPCW의 검증과 국

제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생물 무기 통제

2023년, 러시아는 생물 무기 금지 조약(BWC)을 악용하여 다른 국가들이 생물 무기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러시아의 행위는 생물 무기 확산 및 사용에 반대하는 국제 구조를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BWC 강화를 위한 작업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준수 및 검증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이 논의되었다. 새로 설립된 BWC 강화 작업 그룹은 연중 세 번 회의를 가졌으나, 집단적인 결론이나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다.

보건 안보

국가적 및 협력적인 노력의 결합 덕분에 2023년은 전염병 퇴치에 있어 기록적인 해였다. 2023년 초에 활동 중이던 두 가지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인 Covid-19와 mpox는 모두 종료 선언을 받았다. Covid-19 팬데믹의 기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었다. ●



10. 재래식 군비통제와 비인도적 무기의 규제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는 주요 다자간 조약은 1981년 특정 재래식 무기(CCW) 협약이며, 대인지뢰(APM)와 집속탄에 대한 개별 협약도 포함된다. 다른 국가들이 비인도적이라고 여기는 무기를 보유, 개발 또는 사용하는 일부 국가들은 CCW 체제 강화를 여러 차례 저지해 왔다. 인도주의적 우려를 일으키는 다른 종류의 재래식 무기는 다른 법적 및 정치적 절차에 의해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인구 밀집 지역 폭발물(EWIPA) 사용은 2022년에 채택된 정치적 선언에 의해 다루어졌다. 특히 2023년에는 새로운 글로벌 재래식 탄약 관리 프레임워크가 수립되어 이 분야의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EWIPA 및 기타 비인도적 무기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두 전쟁에서 폭발성 무기의 오용과 기타 국제 인도법 위반이 명백하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군대에 의한 집속탄의 광범위한 사용과 미국의 우크라이나로의 새로운 무기 이전은 2008년 집속탄 협약에 따른 모든 비축 집속탄의 2023년 파기 완료로 무색하게 만들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APM)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조사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문서화된 대부분의 대인지뢰(APM) 사용은 러시아 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CFE 조약의 종료

유럽의 지역 재래식 무기 통제 체제는 2023년 러시아의 1990년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CFE 조약) 탈퇴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2023년 말까지 남은 29개 국가 중 19개국이 조약의 운영을 중단할 의사를 통보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수많은 전쟁법을 위반했으며, 그 후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과 포격은 무차별적이거나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고위 관리들은 이미 연말에 양측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으며, 유엔 전문가 그룹은 가자에서의 대량 학살 위험을 경고했다.

무기 통제에 대한 관심 재집중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는 표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의 종류에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식 무장 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는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향후 무기 통제 협정 전망은 암울하다.

다자간 재래식 무기 통제 성과를 보존하고 무기의 인적 희생을 줄이는 규범을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들은 지나치게 안보화되고 군사화된 평화 접근법에서 벗어나, 신뢰, 연대, 보편성의 핵심 원칙에 기반한 군비 통제 조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1. 인공지능, 사이버 공간 및 우주 공간의 국제 거버넌스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양자 기술 등 새롭게 떠오르는 파괴적인 기술이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제 원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AI, 사이버 공간 및 우주 공간의 세 가지 주요 기술 영역에서 특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

올해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 차원의 AI 거버넌스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다. 첫째, 1981년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CCW)에 따른 자율 무기 시스템(AWS)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이 AWS에 대한 2단계 규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문구를 채택했다. 또한 CCW는 CCW의 맥락에서 AWS에 대한 논의의 잠재적 종착점을 표시할 수 있는 의무를 채택했다. 동시에 각국은 유엔 총회의 후원 하에 CCW 프로세스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트랙을 승인했다.

둘째, 국가는 AWS를 넘어 AI의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대한 위협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변화는 2023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최초의 AI 회의와 두 개의 새로운 논의 포럼, 즉 군사 분야의 책임 있는 AI 국제 정상회의(REAIM) 및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창설로 반영되었다.

셋째, 대화는 기술적으로 더 깊은 수준에 이르고 정치적으로도 더 높은 단계에 진입했다. 예를 들어, REAIM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AI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된 투명성, 해석 가능성, 편향성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으며, AI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세 가지 주요 국제 회의

- REAIM 2023: 2023년 2월 15-16일, 헤이그 세계 포럼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군사 인공지능(AI)에 중점을 두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I 토론: 2023년 7월 18일, 뉴욕에서 열린 이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첫 공식 AI 회의로, 기술에 내재된 위험과 보상의 이중성을 강조했다.
- AI 안전성 정상 회의: 2023년 11월 1-2일,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이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안전성 정상회의에서는 첨단 AI 시스템의 테스트와 평가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와 약속이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정치적 수준의 의사 결정자들을 참여시켰다.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국가 수반들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했으며, 2023년 11월에 열린 중국과 미국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이버 공간 및 ICT(정보 통신 기술)의 악의적 사용

2023년 정보 통신 기술(ICT)은 국가 및 기타 행위자의 외교 정책 및 군사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이버 능력은 종종 다른 도구, 메커니즘 및 활동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2023년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에서 사이버 작전이 사용되었으며, 활동은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과 웹사이트 훼손, 허위 정보 및 영향력 작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했다.



지배적인 지정학적 상황은 사이버 거버넌스를 위한 추가 규범 또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효과를 계속 제한했지만, 2023년 특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진전이 있었다.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래의 유엔 사이버 범죄 조약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었고, 2014년 아프리카 연합 사이버 보안 및 개인 데이터 보호 협약(말라보 협약)이 발효되었고. 유럽 연합 기관은 사이버 복원력 법안을 작성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사이버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고려할 의사를 발표했다. 특정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정부 및 비정부 이니셔티브도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 거버넌스 접근 방식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전 방법이지만, 책임성과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주 안보

2023년에도 유엔 포럼에서 우주 보안 거버넌스를 위한 몇 가지 다자간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다. 유엔 군축 위원회는 우주 공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구축 조치(TCBM)에 대한 실질적인 권장 사항이 포함된 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문제에 대해 합의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3년 최종 세션에서 유엔 개방형 실무 그룹(OEWG)은 보고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OEWG 세션은 민간인 보호 보장, 파편을 생성하는 반위성 무기 실험 방지, 우주 시스템에 대한 비운동 공격 규제, 정보 공유 조치 채택 및 우주 시스템과 관련된 분쟁에서 상업적 주체의 역할 명확화 등 향후 논의를 위한 주요 문제를 강조했다.

사이버 첩보

무력 충돌 외에도 장기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 역량 사용이 증가하고 대규모 또는 단발성 작전은 줄어들었다.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일부 중견 국가들은 2023년에 사이버 첩보 기술과 작전의 정교함을 증가시켰다. 사이버 범죄와 감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전 세계의 개인과 조직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1월에는 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추가 실질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정부 전문가 그룹이 소집되었고, 총회는 두 개의 새로운 OEWG를 제안했다.

여러 유엔 프로세스가 채택됨에 따라 우주 보안 거버넌스 논의의 내 본질에 대한 양극화 및 중복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국가들은 이러한 향후 다자간 프로세스 참여를 위한 가용 자원이나 역량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들은 선의로 참여하고 상호 보완성과 조정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여 우주 보안 거버넌스에 현재 영향을 미치는 일부 유해한 역할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2.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23년 동안 세계, 다자 및 지역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 및 화학, 생물,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에 관련된 군사 및 이중용도 물품의 거래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서방 국가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관련 무기 금수 조치를 확대하고, 유럽연합-미국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무기 금수 조치의 집행을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6월에는 ‘수출 집행 5개국’(Export Enforcement Five) 파트너십이 설립되었다.

무기 거래 통제는 더 넓은 외교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2023년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정 후 반도체 이전에 대한 국가 통제를 채택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형 기술 이전에 대한 새로운 및 보다 조화된 통제를 채택하는 데 중점을 둔 초안 유럽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2023년 8월에 개최된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 회의는 책임 있는 국제 무기 거래에서 산업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당사국들은 ATT 회의의 형식과 범위의 개정 및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논의했다. 이 조약은 재정적 어려움과 보고의 감소를 계속 겪었으며, 2023년에는 새로운 당사국이 없었다.

다자간 무기 금수 조치, 2023

유엔(14개 무기금수조치)

• 아프가니스탄(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아이티(NGF) • 이란(부분적) • 이라크(NGF) • 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 및 단체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부분적; NGF) • 남수단 • 수단(다르푸르)(부분적) • 예멘(NGF)

유럽 연합(22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금수 조치의 이행(11개):

• 아프가니스탄(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아이티(NGF) • 이라크(NGF) • 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 및 단체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부분적; NGF) • 예멘(NGF)

유엔 대응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 유럽연합의 무기금수조치(3개):

• 이란 • 남수단 • 수단

유엔 조치와 별도로인 무기금수조치(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ISIL = 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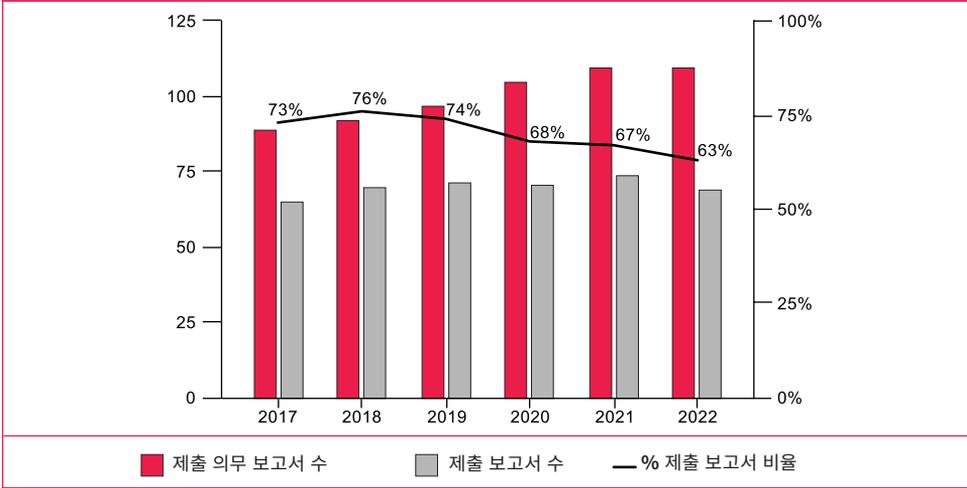
NGF = 비정부 세력; 부분적 = 금수조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상 국가 정부로의 무기이전을 허용한다.

다자간 무기 금수 조치

2023년 동안 14개의 유엔 무기 금수 조치와 22개의 유럽연합 무기 금수 조치가 시행되었다. 2023년에는 새로운 다자간 무기 금수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소말리아에 대한 유엔 금수 조치는 알샤바브 무장단체에만 적용되는 무기 금수 조치로 변경되었다. 주요 쟁점은 제재의 일반적 사용과 중앙아프리카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이 제출한 2016-2021년 연간보고서 2017-2022



공화국, 남수단, 수단, 수단의 정부군에 대한 무기 조달 통제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및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와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했다는 광범위한 의혹과 리비아에 대한 금수 조치의 계속된 비효율성 속에서 2023년 유엔 무기 금수 조치의 효용성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었다.

수출 통제 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화학 및 생물 무기 관련 호주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핵 공급국 그룹 및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바세나르 협정 등 4개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의 활동에 계속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 중 러시아가 참여국인 세 체제는 주요 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통제 목록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술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의 통제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에서 4개의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중개, 통과 및 환적 통제에 대한 공통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이버 감시 품목 통제 및 보고 의무 이행에 관한 지침 개발과 같은 2021년 버전의 EU 이중용도 규제 이행 조치의 채택이 2023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 유럽 대외관계청과 EU 회원국들은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인 무기 수출에 대한 EU 공동 입장 검토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24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조약 (제노사 이드조약)
- 1949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 4차 제네바협약); 1977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 1, 2의정서가 제4차 제네바협약에 추가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토라테로르코조약)
- 1968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조약 (핵비확산조약, NPT)
-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1974 지하핵실험제한조약 (TTBT)
- 1976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협약)
- 1980 핵물질물리적방호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협약, 혹은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조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조약)
- 1987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세부지역군비통제협정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 협약)
- 1999 재래식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빨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협약
-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 2008 확산탄금지협약
-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아프리카 협약 (킨샤사 협약)
-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 2013 무기거래조약 (ATT)
- 2017 핵무기금지조약 (TPNW)



미효력 협정(2024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 채택에 관한 협정

안보 협력 기구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가봉이 군사 쿠데타 후 아프리카 연합(AU)에서 유예되었고, 니제르도 군사 쿠데타 후 아프리카 연합과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에서 유예되었다. 시리아는 2011년의 유예 후 처음으로 아랍 연맹에 재가입하였으며, 핀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다. ●

2023년 주요 사건 연대기

- 1월 3일. 중국이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약 3년 간의 코로나 관련 고립 후 국경을 재개방.
- 2월 21일. 러시아가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에서의 참여를 중단.
-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 4월 15일. 수단에서 경쟁 군 지도자들 간의 무력 갈등 발생.
- 5월 2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코소보 평화 유지군 수십 명과 50명 이상의 세르비아인이 북부 코소보에서의 충돌로 부상.
- 6월 24일. 바그너 그룹의 지도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서 반란을 주도, 모스크바에서 200km 이내까지 진격.
- 7월 7일. 미국이 자국에 비축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이송하기 시작.
- 8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신흥 경제국 그룹 BRICS 회의에서 여섯 개의 새로운 국가가 가입 초청을 받음.
- 9월 19-20일.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민족 아르메니아군에 대한 24시간동안의 군사 공격 후 카라바흐 분리주의자들과 휴전에 합의.
- 10월 7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중 및 지상 공격을 시작.
- 11월 30일 COP28에서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손실 및 피해 기금이 출범.
- 12월 13일.
- 12월 20일.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2만 명에 달함.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을 제공한다.

SIPRI 무기 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총 수익과 무기 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는 2015년부터 포함되고 있다.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2024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24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893057-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번역: 황용하
검토: 문아영, 김가연
출판: 더슬래시
디자인: 소행성디자인



SIPRI YEARBOOK 2024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및 기술, 군비 지출, 무기 생산 및 무기 거래, 무력 분쟁 및 분쟁 관리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핵무기,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 통제 노력에 대한 개괄적 정세를 담고 있다.

본 책자는 2023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55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 무력 분쟁 및 분쟁 관리: 전 세계 및 지역 무력 분쟁,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 작전에 대한 개요와 함께 러시아의 민간 군사 및 안보 기업의 역할, 식량 불안정, 예멘의 기후 관련 평화 및 안보 위험에 대한 주제별 영역
- 군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및 무기 생산 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의 결과
- 세계 핵 전력: 9개 핵무장국 각각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분석
- 핵 군비통제: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대화 및 다자간 조약 내 대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및 우크라이나 핵 발전소에 대한 공격
- 화학적, 생물학적, 보건 안보 위험: 생화학 무기 사용 및 생화학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법적 방안 개발 및 생화학 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
- 재래식 무기 통제 및 비인도적 무기 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 미사일 확산의 결과 및 유럽 재래식 무기 군축 조약의 붕괴에 초점
- 인공지능, 사이버 공간 및 우주 안보의 국제 거버넌스: 자율 무기 시스템에 중점
- 이중 용도 및 무기 거래 통제: 무기 거래 조약의 동향, 다자간 무기 금수 조치 및 수출 통제 체제, 그리고 이러한 통제에 대한 유럽 연합의 법적

이 외에도 군비통제 및 군축 협정, 국제안보협력기구 목록 및 2023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